



축산업계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기획조정관 식품산업본부장에 임명

정부는 지난 10일 농림수산 식품부 박현출 기획조정관을 식품산업본부장으로, 임광수 수산정책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박현출 식품산업본부장은 1956년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와 단국대 법학과,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1982년 농림부에 첫발을 내디딘 후 무역진흥과장, 협동조합과장, 유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농업정보통계관, 축산국장, 농정국장을 지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사교가 논리적인 데다 상사는 물론이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아 닦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 박현출 식품산업본부장

월 29일 서울대학교 대형강의동(201동101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미국, 호주, 일본, 유럽,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생산현황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지규만 교수와 서울대학교 김재홍 교수가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이끌 예정이며, 각 국의 연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통역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국의 생산동향과 안전성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만큼 세계의 양계 흐름을 파악하는데 양계관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관련내용 119페이지)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

남원지역 양계농가 대상 '친환경축산물인증' 농가교육 세미나 개최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단장 류경선 교수)은 지난 4월 6일 남원지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 기술전문위원 16명과 남원지

한국가금학회

춘계국제심포지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가 '세계 가금산업의 생산 및 안전성 관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5

역 양계농가 80여명이 참석해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 친환경인증제도의 소개, 친환경인증제도의 효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방법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과 절차'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북대학교는 양계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cbnupoultry.or.kr)를 통해 양계사양관리뿐만 아니라 양계질병상담 등 양계농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계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전직원 체육행사 실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4월 11일(토) 수원청사내 잔디구장에서 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생활공감형 녹색성장' 기술개발 강화를 다짐하였다. 체육행사는 부서간·직원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간 단합과 금년도 녹색기술 개발 강화에 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증진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한 차원 높게 추진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창립20주년 행사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외국 축산물의 수입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된 1980년 후반, 품질고급화와 유통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9년 축산물등급제도를 도입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 결과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세계 최초로 '실시간 경매 시황중계'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등급정보 365+' 라는 정보콘텐츠를 통하여 등급판정 성적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계란 및 닭고기까지 등급판정 업무 확대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까지 이러한 노력의 결실과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2007년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승격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소장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자료를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과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닭고기 등급판정 외식업체 확대실시

이제 소비자들도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로 만든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통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농협 목우촌 치킨제품인 ‘또래오래’에 사용하는 원료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는 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거나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는 외식용에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농협 목우촌 ‘또래오래’에서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이용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등급을 통해 품질의 균일성뿐만 아니라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홍보되고 다른 외식업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국내 육계산업의 품질 고급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금 도축검사 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금육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가금육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4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지원 검역관, 시·도 도축검사

관 및 도계(압)장 자체검사원 등 도계검사 관계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 도축검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가금 도축검사교육은 검역원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축검사 기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 검역관, 시·도 도축검사관 및 도계장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가금 질병에 대한 육안병리소견 판독기술, 가금 식육 및 가공품 검사, 가금식육 잔류물질검사, 생체 및 해체 검사방법, 도계장 HACCP 관리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시·구제역 국경검역 현장방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5일 축산분야 11개 생산자단체를 초청해 ‘시·구제역 등 국경검역’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국경검역은 중국, 몽골, 동남아 등 불법 축산물 밀반입시 적발되는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선보였다. 검역원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질병의 차단과 방역이 우선순위다. 시·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불법축산물 밀반입의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급증하는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검역탐지견센터를 운영한 결과 적발실적이 꾸준히 향상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